대행 선사 가르침 전할 연구·논의 '한자리에'

한마음과학원 제9회 국제학술대회 성료



(재)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은 10월 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9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학술대회에 참석 대중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안양=신중일 기자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사상을 인문학·심리학·인류학·교육학 등을 통해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재)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10월 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미래사회, 과학 그리고 마음'을 주제로 제9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명상과 보시 공덕의 바른 행을 통해 대행 선사의 한마음 도리가 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혜수 스님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명상과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때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주제들 또한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명상을 통해 대행 선사의 법을 전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노력과 정성이 느껴져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행 선사의 업적을 기릴 오늘의 기조강연 및 발표와 토론, 좌장, 사회를 맡아주신 모든 학자들께 감사드린다. 늘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사부대중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행 선사, 시대 맞춤 해석 전법"

한마음과학원 제9회 국제학술대회는 독일 본 대학의 만프레트 후터 교수의 '대행 선사의 한마음 천수(千手) 지혜와 실천'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후터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천수경〉 중국어본과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을 비교하고 대행 선사가 어떻게 경전에 담긴 지혜를 전하고 일상에서 실천케 했는지를 조명했다.

후터 교수는 종교학에서 속담처럼 전해지는 '텍스트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상기하며 그 예로 불교 경전인 〈천수경〉 한역(漢譯) 과정을 들었다. 그는 동아시아 불교 경전의 번역 과정에서 교훈적인 경구와 서사는 번역되지만, 불보살을 부르는 강력한 진언에 대해서는 음역(音譯)만이 이뤄졌음을 주목하며 "'외국어'로 낭송되는 종교 텍스트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신도들에게는 '소속감'을 느끼게는 해주지만, '믿는다'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후터 교수는 〈천수경〉 중국어본과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의 같은 구절을 비교 분석하고 "대행 선사의 번역본이 경전의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천수경〉 중국어본은 사람을 지옥의 존재 또는 아귀로 만드는 잘못된 정신적 태도를 다루지만,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은 대자비의 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한마음에 머무르고 있음을 인식한 사람은 해로운 모든 것을 극복한다고 설하고 있다.

후터 교수는 "〈뜻으로 푼 천수경〉을 낭송한 독자들은 경전의 내용에 대한 자신만의 접근법을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본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가능케 하고 한마음을 통해 물질세계의 과학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터 교수는 대행 선사의 여러 텍스트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통 텍스트를 번역하는 작업은 모든 종교에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을 전제한 후터 교수는 "한마음선원의 해외지원을 통하여 대행 선사의 뜻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려면 여러 텍스트를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으로 더 많이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법수행 교재 발간 '첫 발'

이어진 학술대회 세션1에서 발표된 '대행 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수행의 어려움 고찰 및 해법 모색(유정오·진복선·허기준)'에서는 관법수행 과정에서 신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해법이 무엇인지를 살폈다.

'관법 수행 교재 개발 연구팀(이하 연구팀)'을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유정오 박사는 "대행 선사께서는 대중들의 참선 수행을 위한 관법을 설파했다"면서도 "하지만, 각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대중들은 관법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한마음선원 본원 및 국내·해외지원 신도 791명에게 설문 조사를 올해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은 자신이 겪은 관법 수행의 어려움을 묻는 자유응답식 개방형 문항을 제시했고, 참여자들은 이에 자유롭게 답변을 기재했다.

조사 결과 신도들은 △주인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대행 선사의 법문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된다 △누구나 이미 갖춘 내면의 능력을 믿기 어렵다 △주인공에 끊임없이 '되입력'하기가 어렵다 △관법 수행 점검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관법 수행 교재 구성 방향을 마련·소개했다. 연구팀은 "관법수행을 모르는 초심자를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대행 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방법의 체계적·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독자 참여로 완성되는 워크북의 특성을 살려 독자 스스로 대행 선사의 법문을 읽고 새기며 관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토록 할 것"이라고 구성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유 박사는 "이번 연구가 관법 수행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가 돼 대중들의 관법 수행 실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대행 선사가 염원한 '인류 정신 발전과 생명 진화'에 본 연구가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션1에서는 최명희 경북대 외래교수가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론 기반 상담자를 위한 관법 프로그램 개발'도 발표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변증법적 행동치료(이하 DBT)' 이론은 자살과 자해 가능성이 높은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임상심리학자 마샤 리네한(Marsha M. Linehan)이 개발한 인지행동 기반 통합치료 이론이다.

최 교수는 DBT 이론과 대행 선사 법문 검색을 기반해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주인공 관법은 대행 선사의 법문에 근거해 총 8회기로 구성되며, 각 회는 90분 간 운영된다. 이에 따라 1~5회기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 소개와 핵심 원리를 다루고 6~8회기는 주인공 관법을 생활에 실현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프로그램은 DBT가 지향하는 마인드풀니스 기법을 관법 실천에 녹여 구성했다"고 밝힌 최 교수는 "회기별로 생각·감정·몸의 관찰과 알아차림에 생활습관을 발견하고 일의 현장인 상담에 적용하는 것을 주제로 관법을 체득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자가 지혜로운 마음을 체득해 내담자에게 모델링할 수 있게 하고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삶의 변화를 위한 관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대행 선사 은유적 가르침 전할 방편 개발을"

학술대회 세션2에서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현장에서 지도한 사례 연구와 마음치유 관점에서 위빠사나와 비교·분석한 연구가 잇달아 발표됐다.

캐나다 세네카 폴리테크닉대학의 글렌 최 교수는 '마음챙김과 대행 선사: 대학생에게 마음챙김 기반 명상을 가르친 사례 연구'를 통해 단국대 국제학술프로그램의 학부생들을 3주 간 명상 지도하며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국적별로 한국 7명, 미국 5명, 싱가포르 2명, 튀르키예 2명, 영국 1명, 캐나다 1명 등 18명이다. 성별은 여성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19~37세로 다양했다.

학생들이 수업 중 배워서 스트레스 요인에 적용한 마음챙김 기반 명상은 △'구체적이고 수동적'(이하 CPA)유형 △'무정형적이고 수동적'(이하 APA)유형 △'구체적이고 적극적'(이하 CAC)유형으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CAC'유형을 좀 더 선호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은 명상과정에서 추상적이거나 무정형의 대상보다 구체적인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더 도움되고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가 교육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친 명상법은 '마음은 용광로'로, 그가 지도한 명상 중 유일하게 "재구성 요소가 내장된 명상"이었다.

최 교수는 학생들에게 산업용 전기 아크 용광로가 작동하는 모습이 담긴 15초 가량의 숏폼을 시청케 하고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을 마음의 용광로에 떨어뜨리라고 지도했다. '마음은 용광로' 명상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향후 마음은 용광로 명상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학생 16명 중 10명(62.5%)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6명(37.5%)은 부정적으로 답했다.

최 교수는 "단국대 국제학술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볼 때 Z세대에게 명상 클래스는 긍정적 피드백이 부정적 피드백보다 높았다"며 "일반적으로 구체적 은유 기반 명상의 대중성과 효과를 감안할 때, 대행 선사 관법 수행 지도자들은 앞으로 젊은이를 지도하는 경우 선사의 은유적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수행법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디지털 이미지와 숏폼 등은 젊은이들에게 마음공부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필수적인 교육도구"라면서 "마음공부 교육을 위한 장소에는 스마트TV나 빔프로젝트 등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숙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미래교육원 책임교수는 '대행 선사의 실천수행론에 대한 마음치유연구-위빠사나를 중심으로'를 통해 대행 선사의 실천수행론인 주인공 관법의 마음치유 요소를 살피고 위빠사나와의 상통점을 고찰했다.

이 책임교수는 "대행 선사의 수행론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심리치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면서도 "주인공 관법은 마음치유 요소와 원리를 제시하며 심리치료기제로서 이론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진 신한대 교수는 불교의 보시행을 통해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불교적 가르침이 최근 인문사회학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신유물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폈다.

'보시를 통해 본 물질과 마음의 관계: 대행 선사와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보시행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박 교수는 "대행 선사는 신도들이 조건 없이, 둘 아닌 마음으로, 무주상의 공심(共心)으로 '물질보시'와 '마음보시'를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고 그만큼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했음"을 상기시키며, "선사의 게송으로 만들어진 '정신발전의 길'이라는 제목의 선법가 내용처럼,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자신의 자성을 밝혀 '내 집 식구' 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내 집 식구(만물만생)'가 다 나눠먹고도 되남는 '끝없는 공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조강연과 세션 발표, 종합토론 이후 진행된 회향식에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회향 인사말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세상에 바로 전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아직도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어려워하는 신도가 많음을 알았다"고 술회한 혜솔 스님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 근본으로 돌아가되 더불어 세상을 향해서 선사의 가르침을 펼쳐 나가는 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고해를 건너는 배를 찾아 한마음선원에 온 신도들이 더 이상 한 명도 헤매지 않고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승단뿐만 아니라 신도 대중도 다 같이 한마음 돼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화행 한마음과학원 부원장은 학술대회가 성료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사부대중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규정 일부를 개정해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으로 회원 자격을 확대했으며, 국제회원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대행 선사가 말씀한 한마음과학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한마음과학원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주위에 잠재력이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인재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터 교수, '뜻으로 푼 천수경' 고찰
"대행 선사 번역, 의미가 더 명확해"

교재 개발 연구팀, 신도 791명 설문
답변 신도 대부분 수행 어려움 토로
"관법수행 워크북 개발 방향을 마련"

글렌 최, 대행 선사 '용광로 명상'
대학생 3주 지도 결과 발표 '눈길'
62% 학생 "명상 지속" 긍정 반응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독일 본 대학의 만프레트 후터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이 회향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션1에서 유정오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세션2에서 글렌 최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주제 발표자와 논평자가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